

## A Study on Self-Expression Improvement of Children through Orff Activities

Kwon, Se mi<sup>\*</sup>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the self-expression of children through Orff activities. In this study, three (3) children from D day care center in Seoul who demonstrated withdrawn behaviors were chosen as research subjects, based on a self-expression test score of 50 points. The activities were conducted for 6 weeks, totaling fourteen (14) sessions, with each session being scheduled for forty (40) minutes. Across 14 sessions, the researcher conducted, analyzed and compared the self-expression scale of subjects, measured during the third and the last session. The researcher then qualitatively analyzed verbal and non-verbal self-expression behaviors of subjects by video recording the session. The analysis results shown by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self-expression scale showed significant changes in self expression. Furthermore, the results of a qualitative analysis of verbal self-expression showed positive changes in self-perception and an increase in feelings of independence and activity than that of initial sessions.

*Keywords : Orff, Child, Self-Expression*

---

\* Soon Chun Hospital Music Therapist

## 유아의 자기표현능력 증진을 위한 오르프 음악활동의 적용

권세미\*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D어린이집에서 만 4~5세 유아 3명을 대상으로 오르프 음악 활동을 통해 자기표현을 향상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주 3회 총 14회기에 걸쳐 진행된 본 프로그램은 그룹 치료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각 세션은 40분의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사용된 기법으로는 오르프 음악활동의 매체를 활용한 말하기, 노래 부르기, 동작, 악기 연주 등의 활동을 시행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대상자들의 자기표현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체 이완, 불안감소, 자아 존중감 향상, 자기표현 기술훈련 등의 활동이 제공되었다. 유아의 자기표현성 향상을 살펴보기 위해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에 기초하여 14회 활동의 사전과 사후에 자기표현 척도 검사를 실시하여 점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오르프 음악활동의 외부환경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유아들의 자유놀이를 비디오로 녹화하고 오르프 음악 활동 사전과 음악활동 중간, 음악활동 사후에 교사 3인이 관찰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르프 음악 활동 내의 상황에서 자기표현 언어 척도 점수를 확인한 결과 평균 6.7점 증가함으로 자기표현이 유의미하게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둘째, 활동 상황 내의 비언어적 자기표현 행동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셋째, 자유놀이 상황 내에 관찰된 자기표현 언어 척도 점수를 확인한 결과 평균 8점 증가함으로 자기표현이 유의미하게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넷째, 자유놀이 상황 내의 비언어적 자기표현 행동 관찰결과 얼굴표정, 신체접촉, 기타 영역에서 평균점수가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핵심어 : 오르프, 유아, 자기표현능력

---

\* 순천병원 음악치료사 (ksm99422@hanmail.net)

## I. 서 론

유아기는 사회적 관계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로써 이 시기는 유아가 사회적으로 유능한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매우 결정적인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적 중요성과 함께 대두되는 것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발달적 노력들이다. 한편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에 의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과거보다 더 어린시기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일이 증가함에 따라 유아의 스트레스 역시 더 이른 시기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한 유아의 사회적 문제행동 역시 더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유아의 정서적 문제에 기인한 자기 표현성의 부재는 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회 부적응 행동 중 하나로 간주되어왔다.

Albert & Emmons(1978)는 자기표현에 대하여 자기의 이익대로 행동하고 부당한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편안하게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며, 타인의 권리를 방해함이 없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즉,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ability)이란 단지 한 가지 반응에만 국한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한 행동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기의 사회성이 훗날의 대인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Coie, Dodge, & Kupersmidt, 1990)에 근거해볼 때, 유아의 정서적 문제에 기인한 자기표현성의 부재는 아동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적응을 어렵게 하고 부정적인 자아 형성에 주요한 원인이 된다. 실제로 위축된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은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경향이 많다(Richmind, 1985)는 연구결과를 볼 때 유아기의 낮은 자기표현성은 유아기의 기질적·행동특성이라고 간과하기에는 그 위험성이 보다 장기적이고 역기능적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표현성이 낮은 유아들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 종종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소심하고 부끄러워하며, 자신을 친구가 거의 없는 외로운 사람으로 지각하고, 소극적이어서 교실에서 집단과제나 자발적 활동,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피한다(Asendorpf, 1991). 자기표현성이 낮은 유아들은 일반적으로 또래 집단으로부터 수줍은 유아로 지각되며, 새로운 상황에서 위축되고, 친숙하지 않은 대상이나 사람을 피할 뿐 아니라 친숙한 상황에서도 또래들과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낮은 집단에 어울리거나 친구를 사귀는 것을 망설이고 힘들어하며 두려워하는 행동을 보인다. 따라서 또래로부터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로움을 보다 많이 경험한다(도현심, 1996; 도현심, 정승원 1997). 따라서 자기표현성이 낮은 유아들은 또래들에 비해 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고, 또래로부터의 낮은 수용성은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받게 하며, 이런 평가에 대한 반응으로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억제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이런 행동 패턴들은 아동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이러지게 된다(Asendopf, 1991).

이를 위해서는 유아들이 불안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고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면서, 자기의 주장, 권리, 욕구, 느낌, 생각 등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편안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인 자기표현 능력이 요구된다. 또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유아라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개인의 능력을 신장하여 능률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자면 좀 더 자기표현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Albert & Emmons, 1978).

이에 유아기의 발달 수준에 적절한 자기표현향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데, 그 중 음악이 유아의 자기표현을 이끄는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음악적 반응으로 인한 음악적 표현, 그리고 음악이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사소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음악은 자신의 정서와 감정,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위한 비위협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한 선행연구로는 집단음악활동이 아동의 자기표현향상에 효과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박연희, 2007), 음악치료가 학습장애아동의 자기표현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김진애, 최애나, 2007) 등이 있다. 천미은(2004)의 연구에서는 노래 부르기, 자유즉흥연주, 율동(movement), 노랫말 짓기(songwriting), 악기 만들기 등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하여 자기 표현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자기표현훈련(권명희, 2000; 김미경, 1991), 놀이중심의 주장훈련(박희량, 2004; 전지현, 1995) 등이 있다.

특히 음악치료 접근법 중 오르프 기법은 노래, 리듬 말하기, 손뼉 치기, 춤추기, 일상생활의 사물 두드리기 등 유아가 즐겨하는 음악적 행동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치료사가 치료 상황 하에서 제공하는 도구, 재료들은 아동의 의사소통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Carl, Gunild, Keetman, & Orff, 1977). 또한 그룹과 개인이 함께 공동의 창작물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역동, 즉 유아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집단의 소속감을 바탕으로 개인과 그룹이 상호작용하는 경험 등은 오르프의 주요한 활동과정이다. 이는 인간 고유의 리듬적 바탕으로 집단 내에서 개인의 자기표현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적절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그 결과 오르프의 방법이 본래 정상 학령기 아동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만, 특수교육과 음악치료 프로그램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Brucia, 1998). 오르프 음악치료의 근원에는 '기초음악(elemental music)'의 개념이 있다. 기초음악은 결코 그 자체가 음악이 되지는 않으며 동작과 말하기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르프 음악치료는 가능한 모든 음악적 매개를 이용한다. 춤, 시, 드라마, 마임, 미술 등 여러 종류의 상이한 표현양식을 이용한다. 따라서 청각적·시각적·촉각적·근육운동 감각적 자극과 반응이 기초음악에 포함 되어있다(강승연, 2003).

오르프 음악활동은 말하기, 노래 부르기, 동작, 악기 연주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표현하도록 돕는다(하경분, 1993). 이 네 가지 기법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자장가와 모국어의 바탕으로 한 다양한 말 리듬과 전래놀이,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의 도구들, 자발적인 몸의 움직임과 언어에서 파생된 다양한 색채, 강세, 리듬 등은 노래와 말이 분리되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관찰과 모방과 발견의 학습과정을 따라 즉흥연주로 이어짐으로써 아동의 무한한 상상과 표현을 자극하는 것이다(Jungmair, 1992). 또한 오르프의 악기들은 그룹작업에 맞게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공동의 음악적 놀이, 놀이규칙들을 수용하고 지키는 것, 공동연주 등을 통해 참가자들은 일련의 근본적인 사회적 태도들을 전개하고 발휘한다. 예컨대 공간을 부여하기, 적응하기, 서로의 의사를 듣기, 서로 맞추기, 시작을 주도하기, 적절하게 침묵할 수 있기 등을 배우는 것이다(Jungmair, 1992). 이숙희와 전인옥(1997)은 오르프 음악치료는 사물의 이름이나 말 등을 노래로 이용하며 음악 자체만이 아니라 동작, 말, 음악이 연관된 종합적인 경험으로 이 ‘기초적인 음악’ 개념은 자연과 인간의 신체가 연결된 음악으로 누구나 쉽게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음악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오르프 음악활동의 단계는 탐색, 모방, 즉흥, 창작 단계로 이어지는데 오르프 음악활동의 탐색 단계에서는 모든 활동이 자연스럽게 강압적이지 않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윤영배, 2008)는 점에서 음악치료의 필수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두 번째의 모방단계에서 모방은 창조를 위한 주된 학습방법이며, 나이와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언어, 신체악기, 움직임, 노래 부르기 그리고 악기 연주하기 등과 같은 영역에서 기초적 기술들을 발전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조효임, 1990). 이는 동시모방과 기억모방·중복모방으로 나뉘는데 동시모방은 치료사가 음악적 지시를 내리는 동시에 아동들이 따라하는 활동을 말한다. 기억모방은 치료사가 음악적 지시를 내리고 이를 기억하게 한 다음에 따라하게 하는 방법이다. 중복 모방은 치료사가 먼저 간단한 음악적 지시를 보여준 뒤 새로운 것을 첨가하면서 유아들에게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에만 따라하도록 하는 방법이다(정현주 외, 2006). 오르프 음악활동의 세 번째는 즉흥단계이다. 칼 오르프에 따르면 모든 수업은 즉흥적인 것으로 시작해야하며 언제나 인간으로부터, 인간 자신 안에 주어져있는 가능성으로부터, 인간의 표현 가능성들로부터 시작하라고 하였다(Jungmair, 1992). 유아가 패턴을 모방하게 되면, 즉흥단계를 시도하는데 아동은 동작, 리듬, 멜로디 모티브의 표현형식을 익힌 후에 즉흥 연주하는 것이 더 편안할 수 있다. 유아는 자신이 가진 즉흥연주 기술을 이용해서 그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치료사는 즉흥을 구조화하고, 리듬 또는 사전에 학습된 재료의 음역을 변화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들의 기능 수준에 따라 자유로운 동작 표현을 유도할 수 있고 시각적 자극이나 상상의 이미지를 동작이나 악기로 표현하도록 구조화하는 방법도 있다. 음악 형식은 즉흥연주를 위해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요소가 된다. 멜로디 동

기나 리듬동기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여 질문과 응답의 형식을 취하여 한 악구를 완성하고 점차 형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또한 그룹연주와 독주를 번갈아 론도형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윤영배, 2008). 오르프 음악활동의 네 번째인 창작단계에서는 그룹이 탐색, 모방 그리고 즉흥의 첫 세 영역으로부터 재료를 통합하는 것이다. 아동들은 론도형식, 주제와 변주 또는 작은 모음곡으로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기회를 갖는다. 주어진 틀 안에서 아동들은 어떤 새로운 것을 창작해내고, 자신만의 고유한 작품을 만들어가며 도전과 만족감, 성취감을 얻는다. 또한 아동은 그들의 리듬, 멜로디, 동작, 말하기의 모든 지식을 사용하여 하나의 결과물을 생산하며 그들의 이야기와 노래를 그들의 음악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자신의 경험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이 가지고 있는 치료적 역할을 통해 유아의 자기표현 향상을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유아기, 특히 본격적인 집단생활을 시작하는 어린이집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음악적 중재의 효과성을 검증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방법으로 오르프 기법을 도구로 사용하여 내적인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음악을 이용한 자기표현능력의 증진을 관찰하고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르프 음악 활동이 유아의 자기표현 향상에 효과를 가져 오는가?

둘째, 오르프 음악활동을 통하여 유아의 자기 표현능력이 자유놀이 시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을 위해 서울시 마포구 소재의 2개 어린이집 만 5, 6세 학급 유아 30명에게 Rakos & Schroeder(1980)의 자기표현 척도를 사용하여 실시한 뒤 3명의 대상을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자기표현 평정척도의 점수의 하위 점수군인 50점 이하로 분류하였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름	성별	연령	자기표현 평정척도점수
A	남	4년 9개월	33
B	여	5년 6개월	40
C	여	5년 5개월	39

아동의 연령은 만 4~5세이며 여아 2명, 남아 1명이다.

## 2. 측정도구

### 1) 자기표현 평정척도

자기표현 평정척도는 Rakos와 Schroeder(1980)의 자기표현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성희, 변창진(1980)이 번안한 것을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수정한 뒤 사용하였다. 자기표현 척도의 신뢰도 점수는 .80이었다.

이 척도는 19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그 중 9문항은 말한 내용에 어느 정도 자기표현 요소가 포함되어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고, 6문항은 음성에 어느 정도 자기표현 요소가 나타나는지를 평가한 문항이며, 나머지 4문항은 말할 때의 표정이나 손발의 움직임 등과 같은 비언어적 자기표현 요소를 평정하는 문항이다.

### 2) 관찰 도구

#### (1) 교사용 자기표현 언어관찰 척도

자기표현 언어를 관찰하기 위한 척도는 Rakos와 Schroeder(1980)의 주장행동관찰평가 척도를 토대로 한 장화순(2003)의 척도를 본 연구자가 유아의 월령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교사용 자기표현 언어관찰 척도의 신뢰도는 .95였으며 총 19문항으로 내용적,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를 5점 척도로 부호화시켜 평정하였다. 내용적 요소는 말한 내용(contents) 자체에 어느 정도 자기표현 요소가 포함되어있는지 평정하는 문항이고, 음성적(paralinguistic) 요소는 음성에 어느 정도 자기표현 요소가 나타나는지를 평정한 문항이다. 예를 들어 말의 명료성이나 음성적 크기 등을 말한다. 비언어적(non-verbal) 요소는 말할 때의 표정이나 손발의 움직임 등과 같이 비언어적인 자기표현 요소가 얼마나 반영되어있는가를 평정하는 문항이다.

#### (2) 유아의 자기표현 행동 관찰 목록

본 연구에서는 안라리(2005)의 유아의 정서표현 관찰 도구를 연구자가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유아의 자기표현 방법의 하위 영역인 얼굴표정, 신체접촉, 기타를 기준으로 아동의 자기표현행동을 관찰하였다. 얼굴표정에는 미소, 웃음, 짜증이 있으며 신체접촉에는 수동적 신체접촉, 능동적 신체접촉이 있다. 기타에는 억양, 비언어적 행동, 음악적 행동이 있다.

얼굴표정은 얼굴 안면 근육의 움직임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중 미소는 타인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웃음 짓는 행동을 말하며 웃음은 타인을 보고 소리를 내어 웃는 행동을 뜻한다. 짜증은 타인을 보고 화가 나서 울기, 얼굴 찡그리기, 뺨 부풀리기, 입술 깨물기, 눈살 찌푸리기 등의 분노 반응을 말한다.

신체 접촉 중 수동적 신체접촉은 타인이 먼저 유아를 만지거나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 등의 친사회적행동을 말하며 능동적 신체접촉은 유아가 자발적으로 타인의 손을 잡거나 쓰다듬는 등의 친사회적 행동을 말한다.

억양은 음성적 강세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행동으로써 예를 들어 올라가는 억양이나 환호성 지르기, 저음의 떨어지는 억양이나 칭얼거리기, 소리 지르기, 투덜대기, 고함치기 등이 해당된다.

비언어적 행동은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서 정서를 표현하는 행동으로써 몸을 크게 휘두르기, 행복감을 표현하며 뛰기, 엉덩이를 들썩거리기 등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있다. 비언어적 행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는 한숨짓기나 어깨 늘어뜨리기, 고개 돌리기, 울먹이며 안기기, 울먹이며 타인을 잡아끌기, 시무룩하게 앉기, 울먹이듯 입을 비죽거리기, 울음을 억누르듯이 입을 손으로 가리기 등의 슬픔 반응과, 발 구르기, 물건던지기, 몸을 격렬하게 흔들기, 밀기, 치기, 때리기, 찌르기, 누르기, 씹씹거리기, 물건 부수기, 차기, 위협적인 자세 취하기, 물건 던지기 등의 분노 반응을 모두 포함한다. 본 관찰을 위해서 관찰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자기표현에 대한 사전 합의와 코딩 방법에 대하여 논의 및 분석하였다. 관찰자간 일치도는 모두 94%의 일치도를 나타내었다.

### 3. 연구 절차

#### 1)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관찰 도구와 자기표현 언어 척도를 이용하여 유아의 자기표현 행동과 언어를 음악치료 내 상황과 음악치료 외 상황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뒤 평가하였다. 음악치료 내 상황의 평가를 위해서는 30분 동안의 음악치료 활동을 비디오로 녹화하였으며, 치료 외 상황의 평가를 위해서는 유아의 어린이집에서의 활동 중 자유놀이 시간을 중심으로 60분 동안 3회(치료 전-7회기 후-14회기 후)에 걸쳐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자기표현언어의 평가는 녹화된 비디오의 언어적인 부분을 전사한 뒤 이를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 2) 연구 절차

##### (1) 대상자 선정 및 사전검사

Rakos와 Schroeder(1980)의 자기표현 평정척도를 이용하여 대상 유아 3인을 선정한 뒤 자기표현 언어관찰 척도와 자기표현 행동관찰 목록을 이용하여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 (2) 프로그램의 실시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3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2008

년 10월 20일~2008년 11월 17일까지 주 3회, 5주에 걸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매 회기는 30~40분이었다.

### (3) 중간 및 사후검사

유아의 자유놀이 시간에 유아의 행동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던 7회기가 끝난 직후 중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사용한 도구는 유아의 자기표현 행동 관찰목록과 유아의 자기표현 언어 관찰척도이다.

프로그램 마지막 회기인 14회기를 마친 후,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상자들에게 동일한 관찰방법과 척도를 사용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 4. 연구 자료 분석

대상 유아의 자기표현 행동을 치료 내 상황과 자유놀이 상황으로 구분하여 측정된 후 평가하였다. 치료 내 상황의 평가를 위해서는 40분 동안의 음악치료 활동을 비디오로 녹화하였으며, 치료 외 상황의 평가를 위해서는 대상유아의 자유놀이 활동을 중심으로 60분간 3회(치료 전-치료 중-치료 후)에 걸쳐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평가는 녹화된 비디오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비디오 분석은 관찰회기를 1분 간격으로 나눈 뒤 행동의 발생과 미 발생 여부를 기록하는 부분간격기록 기법을 사용하였다. 치료 내 상황에서의 평가 자료 분석은 연구자 본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치료 외 상황에서의 평가 자료 분석은 연구자를 포함하여 경력 5년 이상의 교사 3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검사에 앞서 관찰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자기표현에 대한 관찰자간의 사전 합의와 검사 실시요령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사전 합의와 검사 실시요령은 각각 3명 유아의 20분간의 자유선택활동 상황을 녹화한 자료를 보고 그 내용 분류에 대한 토의를 거친 뒤 평정하였다. 행동의 횟수 측정에 대한 채점자간 일치도는 3명 중 2명 이상의 결과를 따르는 형태로 하여 모두 동일한 결과일 경우 1, 그리고 3명 중 2명이 동일한 경우는 0.67로 하여 평균 94%의 일치도를 나타내었다.

유아가 녹화로 인한 의도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실의 한 곳에 미리 일정기간 캠코더를 설치하여 녹화하였다.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선택한 것은 이 시간에는 교사의 평가나 외부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유아의 자발적인 정서적 행동을 위한 비통제적 관찰을 의도하기 위함이었다.

대상 유아의 자기표현 언어는 음악치료 내 상황과 음악치료 외 상황으로 구분하여 측정된 뒤 평가하였다. 음악치료 내 상황의 평가를 위해서는 40분 동안의 음악치료 활동을 비디오로 녹화하였으며, 치료 외 상황의 평가를 위해서는 대상아동의 어린이집에서의 활동

중 자유놀이 시간을 중심으로 한명의 유아 당 60분 동안 3회(치료 전-7회기 후-14회기 후)에 걸쳐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평가는 녹화된 비디오의 언어적인 부분을 전사한 뒤 이를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치료 내 상황에서의 평가자료 분석은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치료 외 상황에서는 연구자를 포함하여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3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음악활동 내에서는 자기표현 언어 척도로 사전, 사후 검사만을 실시하고, 비언어적 자기표현 행동관찰결과는 매회기별로 빈도수로 표시하였는데 이는 음악 중심의 상황에서 언어적인 상호작용은 크게 드러나지 않아 매 회기마다의 언어적 변화는 측정이 어려우므로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사후를 분석하였으며 비언어적인 자기표현행동의 경우 매 회기마다 아동의 표정, 행동 등의 변화가 관찰 가능하므로 빈도수로 측정하였다. 또한 음악치료 상황보다는 자유놀이 상황 내에서는 아동이 다른 아동과 상호작용이 많이 나타나므로 자기 표현 언어관찰과 비언어적 자기표현 행동관찰에서 사전, 중간, 사후로 나누어 관찰결과를 표시하였다. 자유놀이 상황에서만 중간검사를 실시한 것은 음악치료의 효과가 음악외적인 상황으로 전이되어가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 5. 오르프 음악활동의 목표 및 구성

### 1) 오르프 음악활동의 목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표현능력의 향상을 위한 오르프 음악활동을 구성하였다. 이 활동은 아동이 당황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내면의 부정적 정서를 극복하고 자기표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적 관계맺음에 소극적이었던 행동을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여 건강하고 긍정적인 심리·사회적인 발달을 이끌도록 하는 것이다.

크게 도입, 전개, 마무리의 3단계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은 오르프 음악활동의 단계인 탐색을 통한 도입-모방과 즉흥을 통한 전개-창작을 통한 종결의 단계로 세분화되어있다. 이는 탐색과 모방, 즉흥과 창작이라는 오르프의 음악 경험 단계가 전체 프로그램의 발달 순서와도 유사하게 부합되기 때문이다. 그룹에 대한 탐색을 기초로 한 뒤, 그룹원과 치료사에 대한 모방이 일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즉흥적인 표현을 경험하고 자신만의 창조적인 표현능력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이 목표는 자기 표현훈련 중 일반적인 구성요소를 참고하여 위축된 아동의 불안극복, 자아존중감의 향상, 사회적 기술의 증진 등의 구체적인 방법들로 그 내용이 이루어져있다.

전체는 14회기로 이루어져있으며 이 중 도입 단계(1~3회기)는 오르프 음악치료의 단계

중 탐색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음악치료 환경에 적응 및 탐색, 치료사와 그룹원간의 긍정적 관계형성,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경험을 통한 불안감 극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개 단계(4~12회기)는 오르프 음악활동의 단계 중 모방과 즉흥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자아인식, 자아인식을 바탕으로 한 감정 표출과 부정적 감정의 해소, 자아인식을 바탕으로 한 타인 인식 등의 목표가 4~6회기에서 이루어진다. 이 후 7~9회기에서는 음악을 통한 자기표현의 경험 및 자기표현 기술의 습득을 목표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10~12회기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을 목표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0~12회기에는 긍정적 경험을 떠올리고 연주하기,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 표현하기, 외부로부터의 긍정적 피드백 경험하기, 동작의 표현이나 합주를 통한 성취감 경험 등이 주 활동이다.

이후 13~14회기는 프로그램의 종결을 위한 정리 단계로써 자기표현능력향상을 통한 긍정적인 관계맺음의 경험 및 또래관계 증진 등을 목표로 이루어진다. 14회기에서는 유아들이 또래와 선생님, 부모들 앞에서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 아동 자신이 자기표현능력 향상을 내면적으로 확인하고,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맺는데 도움을 주도록 한다.

주로 사용된 악기는 자일로폰, 메탈로폰, 글로켄슈필, 쟁바, 봉고, 키즈드럼, 게더링 드럼, 휘슬, 콰이어혼, 마라카스, 셰이커, 피아노, 카바사, 우드블럭, 윈드차임, 터치벨, 오션드럼, 쉐너튜브 등이며 매 활동에서 아동 스스로가 악기나 활동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시함으로써 유아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 2) 오르프 음악활동의 구성과 내용

본 프로그램은 주 3회 40분씩 5주에 걸쳐 총 14회기를 실시하였으며 매 세션은 도입, 활동, 마무리의 단계로 구성이 되었다. 매 세션은 반기는 노래로 시작하여 아동들이 치료사와 그룹 구성원들 간의 라포를 형성하고 음악활동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안전한 느낌을 갖도록 한다. 또한 불안 감소 및 흥미유발과 음악 활동 내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초기에는 유아들에게 친숙한 음악을 이용한 도입활동이 이루어지다가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기타 사회적 기술이나 정서적 이슈를 다루는 활동으로 진행된다.

이후 20분간은 구성된 오르프 음악활동의 목표에 따른 주 활동이 이루어진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오르프 매체(Orff media)를 이용하여 말하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신체 표현하기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마지막 5분간은 마무리의 단계로써 세션에 대한 느낌 및 다음 세션에 대한 안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침노래를 부른 뒤 세션을 종료한다.

〈표 2〉 오르프 음악활동 1단계(1~3회기): 탐색을 통한 도입

목 표	회기	활동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악적 환경에 적응 및 탐색</li> </ul>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활동 ‘너에 대해 알고 싶어’</li> <li>나를 소개해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들에게 친숙한 노래나 단순하고 반복적인 가사, 음악적 지지 느끼기, 리듬과 화음관계의 조화 등은 유아들의 흥미와 즐거움을 자극함.</li> <li>긍정적인 이름 부르기, 안전한 환경에서 자기 노출하기 등을 통하여 사회적 자아를 강화시킬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료사와 그룹원간의 긍정적 관계형성</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활동 ‘악기로 크고 작게 표현하기’</li> <li>놀이를 통한 노래 부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용적이고 지지적인 경험을 통한 불안감 극복</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활동 ‘작은 동물원 노래 부르기’</li> <li>동물 발자국 소리 표현하기</li> </ul>	

〈표 3〉 오르프 음악활동 2단계(4~12회기): 모방 및 즉흥을 통한 전개

목 표	회기	활동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정 표출을 통한 자아인식</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활동 ‘즐거운 음악 시간 돌아 왔어요’</li> <li>동작활동 ‘친구하고 손을 잡고 노래 불러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소리내기는 노래 전단계의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li> <li>치료사의 동작모방을 통하여 보다 자유로운 몸 움직임을 이끌어내어 유아의 신체적 긴장도를 최소화시킴.</li> <li>감정 표출을 위한 다양한 표현방법의 모델링은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고 이것을 표현으로 이끌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로 사용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정 표출을 통한 자아인식과 부정적 감정의 해소</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활동 ‘마음대로 두드려요’</li> <li>이야기 듣고 연주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악기 연주를 통한 부정적 감정의 해소를 경험하는 것은 음악적 규칙이나 평가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아동이 자신의 억압된 정서를 마음껏 발산하기에 용이함.</li> <li>이야기 형식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접근은 아동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슈들을 탐색하는데 사용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아인식을 바탕으로 한 타인 인식</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활동 ‘동물들의 나들이’</li> <li>누구의 소리일까 들어보세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아인식을 바탕으로 한 타인인식은 그룹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 개인의 역할을 기초로 확장된 집단의 결과물은 타인인식과 성취감의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임.</li> </ul>

〈표 3〉 오르프 음악활동 2단계(4~12회기): 모방 및 즉흥을 통한 전개 (계속)

목 표	회 기	활동	논 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악을 통한 자기 표현의 경험 및 자기표현 기술의 습득</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활동 ‘나의 웃음소리’</li> <li>표정 따라 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기술의 부재가 낮은 자기표현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근거 하에 자기표현의 기술습득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됨.</li> <li>문제를 파악하고, 상황대처 능력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표현기술의 습득, 표정·동작 등의 비언어적인 요소들의 모방, 적절한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언어적 요소인 의사소통 기술의 모방 및 적용 등의 활동을 노래와 악기연주 등으로 구성함.</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휘하기 ‘오늘은 음악하는 날’</li> <li>song writing ‘내가 좋아하는 것’</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활동 ‘정말 고마워’</li> <li>그림이나 상징적인 도형을 소리로 표현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긍정적 경험 떠올리기</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를 칭찬해요</li> <li>긍정적 경험 떠올리고 연주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낮은 자기표현성의 원인이 되는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위하여 노래 가사 안에 칭찬과 격려를 담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부른 뒤 이를 그룹 전체가 합주하도록 하여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도록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긍정적인 관계맺음의 경험을 통한 적극적 자기표현 태도 형성 및 또래관계 증진</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활동 ‘씩씩하게 걸어요’</li> <li>즉흥연주 ‘악기 연주 해봐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음악적 경험을 통한 성취감을 통하여 더욱 강화될 수 있음. 이를 위하여 다양한 즉흥연주활동과 동작 표현, 합주경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전 단계보다 더욱 집단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강화된 형태임.</li> <li>그룹 속에 속한 개인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개인이 그룹을 리드하는 경험을 통하여 유아들의 자기 노출을 도움.</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은 별’ 합주하기</li> <li>긍정적 관계를 노래로 표현하기 ‘00를 사랑해’</li> </ul>	

〈표 4〉 오르프 음악활동 3단계(13~14회기): 창작을 통한 종결

목 표	회 기	활동	논 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긍정적인 관계맺음의 경험 및 적극적 태도 형성</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은 별’ 합주연습</li> <li>이야기에 기초한 악기 합주 ‘어느 아이의 작은 노랫소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경험은 아동에게 그동안의 음악치료 경험들에 대하여 가치 있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그램의 종결을 위한 정리</li> </ul>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구들과 선생님, 부모님들 앞에서 음악 활동 발표하기</li> <li>프로그램 평가하기</li> </ul>	

### Ⅲ. 연구결과

#### 1. 척도 검사 결과

##### 1) 음악활동 내 자기표현 언어 척도 사전사후 비교

###### (1) 음악활동 내 자기표현 언어 척도 사전사후 결과 비교

본 연구에서 음악활동에 참석한 대상자들에게 실시한 자기표현 언어 관찰척도 사전사후 점수 결과는 <표 5>와 같다. 대상자별로 음악치료 활동 적용 전의 자기표현 언어 관찰 척도 점수를 살펴보면 아동 A가 3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였고, B는 4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C는 39점이었다. 음악 활동 적용 후 아동C의 자기표현 언어 관찰척도 점수는 39점에서 50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표 5> 참조).

<표 5> 음악활동 내 자기표현 언어 척도 사전사후 결과 비교

	아동 A	아동 B	아동 C	평균
사전	33	40	39	37.3
사후	36	46	50	44

###### (2) 음악활동 내 자기표현 언어 척도 하위요인별 비교

음악활동 내의 자기표현 언어 관찰척도의 하위요인인 내용적 요소와 음성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아동 A의 경우 내용적 요소는 사전 14점에서 사후 15점으로, 음성적 요소는 8점에서 9점으로, 비언어적 요소는 11점에서 12점으로 증가하였다.

아동 B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 내용적 요소는 사전 13점에서 사후 15점으로, 음성적 요소는 15점에서 16점으로, 비언어적 요소는 12점에서 15점으로 증가하였다. 아동 C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 내용적 요소는 사전 15점에서 사후 20점으로, 음성적 요소는 10점에서 15점으로, 비언어적 요소는 14점에서 15점으로 증가하였다. 아동 C의 경우 전체 점수가 사전

<표 6> 음악활동 내 자기표현 언어 척도 하위요인별 비교

	아동 A		아동 B		아동 C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내용적	14	15	13	15	15	20
음성적	8	9	15	16	10	15
비언어적	11	12	12	15	14	15

39점에서 사후 50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특히 내용적 요소와 음성적 요소에서 각각 5점씩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표 6> 참조).

## 2) 음악활동 내 비언어적 자기표현 행동 관찰결과

음악 활동 내 상황에서 유아의 비언어적 자기표현의 변화는 자기표현 행동 관찰목록에서 분류된 얼굴표정, 신체접촉, 기타의 분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얼굴표정의 하위요인에는 미소, 웃음, 짜증이 있으며 신체접촉은 수동적 신체접촉, 능동적 신체접촉으로 분류된다. 기타는 눈맞춤, 억양, 비언어적 행동이 포함된다.

### (1) 아동 A의 비언어적 자기표현 행동 관찰결과

#### ① 얼굴표정

음악 활동 내에서 나타난 아동 A의 얼굴표정 변화는 미소와 웃음, 짜증으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음악치료 1회부터 14회까지 관찰된 아동 A의 얼굴표정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미소는 5번에서 16번으로 증가하였으며 웃음은 2번에서 12번으로 증가하였고, 짜증은 5, 6, 12회기에서 각각 1번씩 나타났다. 이중 미소가 가장 큰 증가를 보였으며 소리 내어 웃는 등의 웃음 역시 크게 상승하였다. 이것은 아동이 치료 중 긍정적인 정서반응을 더 많이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짜증은 초기부터 마지막 회기까지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음악치료 활동 상황 중 부정적인 정서를 자극할 만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표 7> 참조).

<표 7> 아동 A의 얼굴표정을 통한 자기표현 행동 관찰결과

회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미소	5	6	7	4	5	8	8	9	12	14	14	18	20	16
웃음	2	2	6	5	5	7	7	9	10	10	12	14	13	12
짜증	0	0	0	0	1	1	0	0	0	0	0	1	0	0

#### ② 신체접촉

오르프 음악 활동 내 상황 중에 나타난 아동 A의 신체접촉의 변화는 수동적 신체접촉과 능동적 신체접촉으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1회기부터 14회기까지 관찰된 아동 A의 신체접촉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수동적 신체접촉은 1회기에서 1회로 시작하여 마지막 14회기에는 5회로 증가하였으며 능동적 신체접촉은 1회기의 0회에서 14회기에 4회로 증가하였다. 수동적 신체접촉이 능동적 신체접촉보다 많이 나타나는데 초반에는 수동적 신체접촉과 능동적 신체접촉이 격차를 보였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8> 참조).

<표 8> 아동 A의 신체접촉을 통한 자기표현 행동 관찰결과

회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수동적	1	1	1	3	1	3	3	3	4	4	6	5	6	5
능동적	0	0	1	0	1	4	1	1	5	2	4	3	5	4

### ③ 기타

음악 활동 내에 나타난 아동 A의 기타 자기표현 행동은 눈맞춤, 억양, 비언어적 행동으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1회기부터 14회기까지 관찰된 아동 A의 기타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눈맞춤은 1회기에서 3회로 시작하여 마지막 14회기에는 12회로 증가하였으며, 억양을 통한 자기표현은 1회기에서 2회로 시작하여 마지막 14회기에는 8회로 증가하였고, 비언어적 행동을 통한 자기표현은 1회기에서 2회로 시작하여 마지막 14회기에는 10회로 증가하였다. 눈맞춤은 5회기에서 6회기로 진행되는 동안 급격히 상승하는데 이때 치료사와의 상호작용이 중심이 되는 활동이었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이후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씩 횟수가 감소하는데 이는 후반부로 가면서 타인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내용보다는 유아가 음악을 매개체로 타인과 상호작용 하는 내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눈맞춤을 할 기회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표 9> 참조).

<표 9> 아동 A의 기타 자기표현 행동 관찰결과

회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눈 맞춤	3	5	4	6	6	16	12	14	14	15	13	14	13	12
억양	2	3	3	2	3	6	5	5	6	8	7	8	8	8
비언어적행동	2	3	5	6	7	7	7	8	6	8	8	9	10	10

### (2) 아동 B의 비언어적 자기표현 행동 관찰결과

오르프 음악 활동 내 상황에서 아동 B의 비언어적 자기표현의 변화는 자기표현 행동 관찰목록에서 분류된 표정, 신체접촉, 기타의 분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① 얼굴표정

오르프 음악 활동 내에서 나타난 아동 B의 얼굴표정 변화는 미소와 웃음, 짜증으로 나누

어 관찰하였다. 음악활동의 1회부터 14회까지 관찰된 아동 B의 얼굴표정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미소는 2번에서 20번으로 증가하였으며 웃음은 3번에서 13번으로 증가하였고, 짜증은 7회에서 1번 나타났다. 짜증은 7회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음악치료 활동 상황 중 부정적인 정서를 자극할 만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리를 내어 웃는 웃음보다는 표정변화만 나타나는 미소가 더 많다(<표 10> 참조).

<표 10> 아동 B의 얼굴표정을 통한 자기표현 행동관찰결과

회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미소	2	2	3	4	5	5	7	8	6	11	14	14	17	20
웃음	3	2	3	3	4	3	5	5	7	9	13	12	13	13
짜증	0	0	0	0	0	0	1	0	0	0	0	0	0	0

### ② 신체접촉

오르프 음악 활동 내 상황 중에 나타난 아동B의 신체접촉의 변화는 수동적 신체접촉과 능동적 신체접촉으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1회기부터 14회기까지 관찰된 아동B의 신체접촉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수동적 신체접촉은 1회기에서 0번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14회기에는 4번로 증가하였으며, 능동적 신체접촉은 1회기의 1번에서 14회기에 5번으로 증가하였고 13회기에서 최고 6번을 나타내었다(<표 11> 참조).

<표 11> 아동 B의 신체접촉을 통한 자기표현 행동 관찰결과

회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수동적	0	0	1	2	2	3	3	1	3	3	5	4	5	4
능동적	1	1	1	3	2	3	2	3	4	2	3	3	6	5

### ③ 기타

오르프 음악 활동 내에 나타난 아동의 기타 변화 양상은 눈 맞춤, 억양, 비언어적 행동으로 자기표현이 일어나는지를 통해 관찰하였다. 1회기부터 14회기까지 관찰된 아동B의 기타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눈 맞춤은 1회기에서 4번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14회기에는 13번으로 증가하였으며, 억양을 통한 자기표현은 1회기에서 2번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14회기에는 8번으로 증가하였고, 비언어적 행동을 통한 자기표현은 1회기에서 3번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14회기에는 9번으로 증가하였다. 눈 맞춤은 12회기까지 정점을 보이다가 14회기까지 소폭 감소하는데 이것은

유아가 마지막 회기에 있을 발표를 준비하고 시행하면서 연주에 몰입하여 악기에 시선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다.

억양과 비언어적 행동은 대폭 증가하는데 이것은 유아가 자신의 미숙한 조음문제로 인하여 언어사용을 꺼리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억양이나 비언어적인 행동들로 자기 표현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표 12> 참조).

<표 12> 아동 B의 기타 자기표현 행동 관찰결과

회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눈 맞춤	4	6	7	8	8	9	12	13	14	14	13	14	13	13
억양	2	3	2	3	4	5	4	5	4	4	6	7	6	8
비언어적 행동	3	4	4	5	6	7	6	7	5	8	6	9	9	9

### (3) 아동 C의 비언어적 자기표현 행동 관찰결과

#### ① 얼굴표정

오르프 음악 활동 내에서 나타난 아동 C의 얼굴표정 변화는 미소와 웃음, 짜증으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음악활동 1회부터 14회까지 관찰된 아동 C의 얼굴표정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미소는 6번에서 12번으로 증가하였으며 웃음은 3번에서 12번으로 증가하였고, 짜증은 7회와 11회에서 각각 1번씩 나타났다. 짜증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음악활동 내에서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자극할만한 사건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표 13> 참조).

<표 13> 아동 C의 얼굴표정을 통한 자기표현 행동 관찰결과

회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미소	8	6	7	8	9	6	8	6	9	8	9	9	12	11
웃음	4	4	5	3	5	6	4	8	9	10	11	7	9	12
짜증	0	0	0	0	0	0	1	0	0	0	1	0	0	0

#### ② 신체접촉

오르프 음악 활동 내 상황 중에 나타난 아동 C의 신체접촉의 변화는 수동적 신체접촉과 능동적 신체접촉으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1회기부터 14회기까지 관찰된 아동 C의 신체접촉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수동적 신체접촉은 1회기에서 2번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14회기에는 5번로 증가하였으며 8회기와 9회기에서 최고 6번을 나타내었다. 능동적 신체접촉은

1회기의 3번에서 14회기에 6번으로 증가하였고 10, 11, 13회기에서 최고 7번을 나타내었다. 아동 C의 경우는 수동적 신체접촉과 능동적 신체접촉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회기인 14회기에서는 신체접촉이 감소하는데 이것은 14회기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내용이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동들과 신체접촉을 할 기회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표 14> 참조).

<표 14> 아동 C의 신체접촉을 통한 자기표현 행동 관찰결과

회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수동적	2	1	2	4	3	4	4	6	6	4	5	5	5	5
능동적	3	3	3	4	4	5	5	6	5	7	7	5	7	6

### ③ 기타

오르프 음악 활동 내에 나타난 아동 C의 기타 변화 양상은 눈 맞춤, 억양, 비언어적 행동으로 자기표현이 일어나는지를 통해 관찰하였다. 1회기부터 14회기까지 관찰된 아동 A의 기타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눈 맞춤은 1회기에서 7회로 시작하여 마지막 14회기에는 19회로 증가하였으며, 억양을 통한 자기표현은 1회기에서 5회로 시작하여 마지막 14회기에는 13회로 증가하였고, 비언어적 행동을 통한 자기표현은 1회기에서 3회로 시작하여 마지막 14회기에는 12회로 증가하였다. 아동 C의 눈 맞춤은 12회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3회기에서 감소하는데 이때는 아동이 악기 연주에 몰입을 해서 악기에 시선이 고정되어있었기 때문에 눈 맞춤의 횟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표 15> 참조).

<표 15> 아동 C의 기타 자기표현 행동 관찰결과

회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눈 맞춤	7	8	9	9	8	9	10	12	15	17	18	20	15	19
억양	5	3	2	5	5	7	8	8	9	7	10	12	8	13
비언어적행동	3	4	2	6	7	8	8	11	12	14	12	16	12	12

### 3) 자유놀이 상황 내 자기표현 행동 변화

#### (1) 자유놀이 상황 내 자기표현 언어 관찰결과 변화

본 연구에서 음악활동에 참석한 대상자들에게 실시한 자기표현 언어 관찰척도 사전·중간·사후 점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유놀이 상황에서는 아동A의 경우 사전검사 시 40점,

중간검사 시 44점, 사후검사 시 43점으로 변화하였다. 아동 B의 경우 사전검사 시 40점, 중간검사 시 45점, 사후검사 시 51점으로 변화하였다. 아동 C의 경우 사전검사 시 42점, 중간검사 시 45점, 사후검사 시 52점이었다.

아동 A의 경우 중간검사까지 점수가 상승했다가 사후검사 시에 소폭 감소하는데 이것은 사후검사 시에 아동이 감기로 인하여 언어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동 B와 C는 큰 폭으로 상승하며 세 명의 아동 모두 음악활동 내보다 자유놀이 시간에 더 많은 점수를 얻었다. 이것은 아동의 언어적인 반응이 자유놀이 시간에 보다 더 자유롭고 많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표 16> 참조).

<표 16> 자유놀이 상황에서 대상자들의 자기표현 언어 관찰 결과

	아동 A	아동 B	아동 C	평균
사전	40	40	42	40.6
중간	44	45	45	44.6
사후	43	51	52	48.6

#### (2) 자유놀이 상황 내 자기표현 언어 척도 하위요인별 비교

자유놀이 상황 내의 언어적 자기표현의 변화는 자기표현능력검사 척도에서 분류된 내용적 요소, 음성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로 나누어 사전과 중간, 사후에 관찰한 후 채점한 각각의 점수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영역에서의 자기표현 향상을 알아보았다.

자유놀이 상황 내의 아동 A의 언어적 자기표현의 변화는 내용적 요소가 사전검사 시 12점, 중간검사 시 13점, 사후검사 시 15점을 기록하였으며 음성적 요소는 사전검사 시 15점, 중간검사 시 17점, 사후검사 시 16점을 기록하였다. 비언어적 요소는 사전검사 시 13점, 중간검사 시 14점, 사후검사 시 12점을 기록하였다.

아동 B의 언어적 자기표현의 변화는 내용적 요소가 사전검사 시 12점, 중간 검사 시 14점, 사후검사 시 16점을 기록하였으며 음성적 요소는 사전검사 시 13점, 중간검사 시 15점, 사후검사 시 16점을 기록하였다. 비언어적 요소는 사전검사 시 15점, 중간검사 시 16점, 사후검사 시 19점을 기록하였다.

아동 C의 언어적 자기표현의 변화는 내용적 요소가 사전검사 시 16점, 중간 검사 시 17점, 사후검사 시 20점을 기록하였으며 음성적 요소는 사전검사 시 11점, 중간검사 시 12점, 사후검사 시 15점을 기록하였다. 비언어적 요소는 사전검사 시 15점, 중간검사 시 16점, 사후검사 시 17점을 기록하였다.

아동 A를 제외한 두 명의 아동은 각 요인별로 고르게 점수가 증가하였으며 아동 A의 경

우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을 때 감기에 걸려 음성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에서 다소 감소된 점수를 얻었다(<표 17> 참조).

<표 17> 자유놀이 상황에서의 자기표현 언어 관찰척도 하위요인별 비교

	아동 A			아동 B			아동 C		
	사전	중간	사후	사전	중간	사후	사전	중간	사후
내용적	12	13	15	12	14	16	16	17	20
음성적	15	17	16	13	15	16	11	12	15
비언어적	13	14	12	15	16	19	15	16	17

#### 4) 자유놀이 상황 내 비언어적 자기표현 행동 관찰결과

##### (1) 아동 A의 비언어적 자기표현 행동

자유놀이 상황 내에서 나타난 아동 A의 얼굴표정 변화는 미소와 웃음, 짜증으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미소는 사전검사 시 8번에서 중간검사 시 12번, 사후검사 13번으로 증가하였으며 웃음은 사전검사 시 10번, 중간검사 시 14번, 사후검사 시 17번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짜증은 사전에서 0번, 중간검사에서 2번이 나타났으며 사후검사에서는 3번이 나타났다. 짜증 반응의 경우 아동이 평소 원하는 대상과 선택적으로만 놀이하는 경향이 있고, 갈등이나 마찰은 회피하는 성격이라서 짜증을 비롯한 요인을 스스로 차단한 것으로 보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0번에서 3번까지 짜증을 표현한 것은 자기표현성이 향상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신체접촉 변화는 수동적 신체접촉과 능동적 신체접촉으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수동적 신체접촉은 사전검사 시 5번에서 중간검사 시 8번, 사후검사 13번으로 증가하였으며, 능동적 신체접촉은 사전검사 시 3번에서 중간검사 시 7번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사 시 6번으로 나타났다. 음악치료 내의 상황보다 자유놀이 시 신체접촉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수동적 신체접촉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자유놀이 시에는 음악치료 그룹 내의 3명의 대상자들보다 더 많은 또래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신체접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기타 변화는 눈 맞춤과 억양, 비언어적 행동으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눈 맞춤은 사전검사 시 9번에서 중간검사 시 14번, 사후검사 15번으로 증가하였으며, 억양은 사전검사 시 8번에서 중간검사 시 12번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사 시 15번으로 증가하였다. 비언어적 행동은 사전검사 시 6번, 중간검사에서 5번이 나타났으며 사후검사에서는 6번으로 나타났다(<표 18> 참조).

〈표 18〉 자유놀이 상황 내 아동 A의 비언어적 자기표현 행동 관찰결과

		사전	중간	사후
얼굴 표정	미소	8	12	13
	웃음	10	14	17
	짜증	0	2	3
신체 접촉	수동적	5	8	13
	능동적	3	7	6
기타	눈 맞춤	9	14	15
	억양	8	12	15
	비언어적 행동	6	5	6

## (2) 아동 B의 비언어적 자기표현 행동

자유놀이 상황 내에서 나타난 아동 B의 얼굴표정 변화는 미소와 웃음, 짜증으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미소는 사전 검사 시 6번에서 중간 검사 시 9번, 사후검사 10번으로 증가하였으며 웃음은 사전 검사 시 8번에서 중간 검사 시 8번으로 동일하였으나 사후검사 시 12번으로 증가하였다. 짜증은 사전과 중간검사에서 각각 1번이 나타났으며 사후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유놀이 상황 내에서 나타난 아동 B의 신체접촉 변화는 수동적 신체접촉과 능동적 신체접촉으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수동적 신체접촉은 사전 검사 시 5번에서 중간검사 시 9번, 사후검사 시 12번으로 증가하였으며, 능동적 신체접촉은 사전검사 시 4번에서 중간검사 시 6번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사 시 7번으로 증가하였다.

〈표 19〉 자유놀이 상황 내 아동 B의 비언어적 자기표현 행동 관찰결과

		사전	중간	사후
얼굴 표정	미소	6	9	10
	웃음	8	8	12
	짜증	1	1	0
신체 접촉	수동적	5	9	12
	능동적	4	6	7
기타	눈 맞춤	9	13	15
	억양	7	12	12
	비언어적 행동	8	7	9

아동 B의 기타 변화는 눈 맞춤과 억양, 비언어적 행동으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눈 맞춤은 사전검사 시 9번에서 중간검사 시 13번, 사후검사 15번으로 증가하였으며, 억양은 사전 검사 시 7번에서 중간검사 시 12번으로 나타났으며 사후 검사 시 12번으로 동일하였다. 비언어적 행동은 사전검사 시 8번, 중간검사에서 7번이 나타났으며 사후검사에서는 9번으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 (3) 아동 C의 비언어적 자기표현 행동 변화

자유놀이 상황 내에서 나타난 아동C의 얼굴표정 변화는 미소와 웃음, 짜증으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미소는 사전검사 시 9번에서 중간검사 시 14번, 사후검사 15번으로 증가하였으며, 웃음은 사전검사 시 11번에서 중간검사 시 13번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사 시 18번으로 증가하였다. 짜증은 사전 검사 시 2번이 나타났으나 중간검사와 사후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동적 신체접촉은 사전검사 시 6번에서 중간검사 시 8번, 사후검사 22번으로 증가하였으며, 능동적 신체접촉은 사전검사 시 4번에서 중간검사 시 6번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사 시 15번으로 증가하였다.

기타 변화 중 눈 맞춤은 사전검사 시 11번에서 중간검사 시 14번, 사후검사 15번으로 증가하였으며, 억양은 사전검사 시 10번에서 중간검사 시 12번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사 시 12번으로 동일하였다. 비언어적 행동은 사전검사 시 7번, 중간검사에서 9번이 나타났으며 사후검사에서는 9번으로 동일하였다(<표 20> 참조).

<표 20> 자유놀이 상황에서 아동 C의 비언어적 자기표현 행동 관찰결과

		사전	중간	사후
얼굴 표정	미소	9	14	15
	웃음	11	13	18
	짜증	2	0	0
신체 접촉	수동적	6	8	22
	능동적	4	6	15
기타	눈 맞춤	11	14	15
	억양	10	12	12
	비언어적 행동	7	9	9

## IV.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르프 음악활동 내의 상황에서 자기표현 언어 척도 점수를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자기표현 언어 척도 점수가 평균 37.3점에서 44점으로 평균 6.7점 증가함으로 자기표현이 유의미하게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오르프 음악활동 상황 내의 비언어적 자기표현 행동 관찰결과 매 회기별로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얼굴표정 중 미소, 웃음은 회기가 지날수록 증가하였으며 짜증은 불규칙적으로 나타났다. 신체접촉과 기타 영역은 후반부로 갈수록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유놀이 시간에 관찰된 자기표현 언어 관찰 척도의 총점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대상자의 자기표현 언어 척도 점수가 사전 검사 시 평균 40.6점에서 중간검사 시 평균 44.6점으로, 사후검사 시 평균 48.6점으로 평균 8점 증가함으로 자기표현이 유의미하게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자유놀이 상황내의 비언어적 자기표현 행동 관찰결과 얼굴표정은 사전 18.2점에서 중간 검사 시 24.2점, 사후 검사 시 30.6점으로 증가하였고, 신체접촉은 사전 검사 시 7.2점에서 중간 검사 시 14.6점, 사후 검사 시 24.9점으로 증가하였으며, 기타 영역에서는 사전 검사 시 24.9점에서 중간 검사 시 32.6점, 사후 검사 시 36점으로 평균점수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비록 모집단의 숫자가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했지만 척도 검사를 비롯한 양적 보고와 관찰 기록과 부모·교사보고에 의하여 아동의 자기표현성의 향상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부모의 면담자료를 통하여 음악치료를 실시한 이후 아동의 자기 주장적 행동이 늘고 또래 관계에서도 거절하기, 자신이 먼저 시작하기 등의 자기표현적인 반응들도 많이 증가하였다고 말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동의 전반적인 대인관계문제와 심리적인 문제들이 상당부분 감소하였다고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음악 활동의 실시 후 자기표현능력이 증진되었다는 선행 연구결과들(김은정, 2007; 김진애, 최애나, 2007; 박연희, 2007; 천미은, 2004)과 일치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기 표현성의 향상을 위한 오르프 음악활동이 유아의 자기표현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가 일반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사회·정서적인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서 음악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음악치료 상황에서 일어난 변화를 음악치료 외부 환경으로 전이된 것을 관찰하였다는 점에서 음악치료 효과의 연속성을 증명하기 위한 형태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치료내의 환경에서 연구자 1인이 관찰한 내용을 연구결과에 반영한 것은 연구의 신뢰도에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치료내의 환경에서도 관찰자 간의 평가가 필요하다. 둘째로 모집단의 숫자가 작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아의 행동양상을 관찰, 기록한 뒤 기술 등의 방식으로 분석하는 등의 질적 연구로 보완하는 형태의 향후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로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타당도에 대한 검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연구결과에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승연 (2003) 오르프 슐베르크 음악치료가 주의집중 장애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명희 (2000). 자기주장훈련이 위축아동의 위축행동 및 또래 수용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 (1991). 수줍어하는 아동을 위한 자기표현훈련 효과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 변창진 (1980). 주장훈련 프로그램. **경북대 학생 지도연구**, 13(1), 51-58.
- 김은정 (2007). 결손가정 청소년을 위한 자기표현 노래만들기 활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애, 최애나 (2007). 음악치료가 학습장애아동의 자기표현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3(2), 63-78.
- 도현심 (1996).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33-45.
- 도현심, 정승원 (1997). 부모의 사회성 및 양육 행동과 아동의 수줍음. **아동학회지**, 18(2), 149-161.
- 박연희 (2007). 집단음악활동이 학교생활 부적응 아동의 스트레스 감소 및 자기 표현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량 (2004). 놀이중심의 주장훈련이 초등학생의 부끄러움 감소와 주장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라리 (2005). 유아의 개인변인 및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정서 발달, 사회적 능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영배 (2008). Orff 접근법에 의한 유아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음악적성, 감성지능 및 창의성

- 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숙희, 전인옥 (1997). **유아 음악**. 서울: 한국 방송대학교 출판부.
- 장화순 (2003).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이 정신편별병환자의 주장행동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지현 (1995). 놀이중심의 주장훈련이 국민학생의 부끄러움 수준과 주장성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주 외 (2006).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서울: 학지사.
- 조효임 (1990). Orff 악기의 편성과 연주법. **서울 교육대학 논문집**, 23, 141-168.
- 천미은 (2004). 음악치료가 학습장애아동의 자기표현, 사회성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경분 (1993). Orff-Schulwerk 음악치료에 관한 고찰 및 임상사례,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bert & Emmons (1978). *Your perfect right: A guide to assertive behavior*. San Luis Obispo, Calif: Impact.
- Asendorpf (1991). Development of inhibited children's coping unfamiliarity. *Child Development*, 62, 1460-1474.
- Bruscia, K. E. (1998). **음악치료의 즉흥연주 모델**. 김군자 역. 서울: 양서원.
- Carl, Gunild, Keetman, & Orff. (1977). *Music for children: Based on musik fur kinder*. NY: Schott Music corp.
- Coie, J. D., Dodge, K. A., & Kupersmidt, J. B. (1990). The role of poor peer relationships in the development of disorder.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17-59).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ungmair, U. E. (1992). *Das Elementare*: Schott. 이희숙(역). 오르프-엘레멘타 음악교육연구소.
- Rakos, R. P., & Schroeder, H. B. (1980). *Self-directed assertiveness training*. NY: Bio Monitoring Applications.
- Richmind, V. P. (1985). Shyness and popularity and behavior in parents of temperamentally inhibited and uninhibite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0, 346-354.

- 게재신청일: 2009. 03. 24.
- 수정투고일: 2009. 04. 15.
- 게재확정일: 2008. 05. 06.